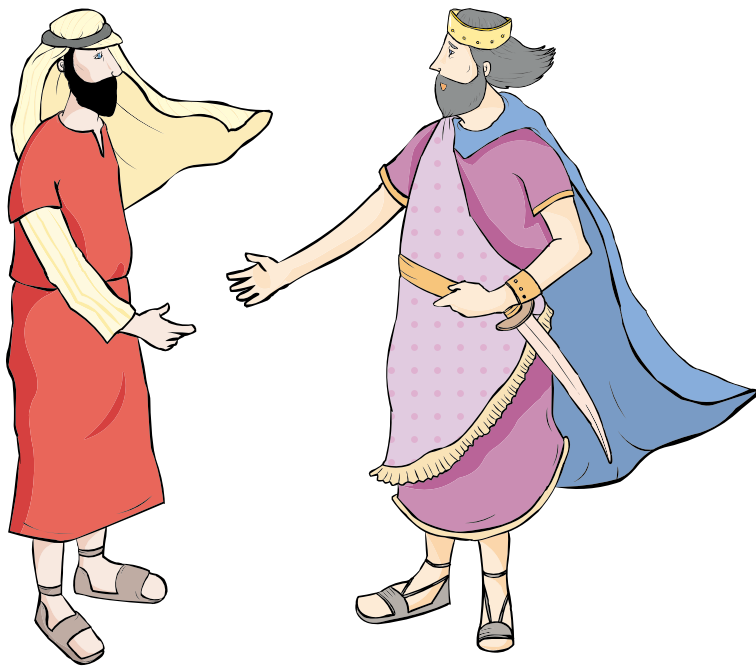


머리도근

3·4 학년

제 1 권





발행처 영생의 말씀사
기 획 생명의말씀선교회 교회학교 초등부
디자인 문서선교부

주 소 경기도 안양시 흥안대로492번길 10 서울중앙교회선교센터 3층
연락처 070-7121-1280 문서선교부
홈페이지 www.jbvh.org (생명의말씀선교회) school.jbch.org(교회학교)

차례

3,4학년 머릿돌 2025년 제1권

1. 학년을 시작하며 4 1월 5일
2. 하나님의 말씀, 성경 10 1월 12일
3. 천지창조 15 1월 19일
4. 사람의 창조 20 1월 26일
5.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 25 2월 2일
6. 가죽옷을 입혀 주신 하나님 30 2월 9일
7. 가인과 아벨의 제사 35 2월 16일
8. 노아의 방주 41 2월 23일
9. 무지개와 하나님의 약속 46 3월 2일
10. 바벨탑 51 3월 9일
11. 하나님을 경외한 욥 56 3월 16일
12. 아브람을 부르신 하나님 62 3월 23일
13. 아브람의 조카 롯 67 3월 30일



이것만은 기억해요!
72

1

학년을 시작하며



이제 새로운 학년에 올라가게 됩니다. 교회학교에서 어떤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게 될까요?

작년에는 교회학교에서 정말 재미있고 기억에 남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신나고 즐거운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난 학년을 돌이켜 보면 후회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학교에서 머릿돌이나 암송을 제대로 하지 못해 부끄러운 때도 있었고, 말씀 시간에 친구들과 장난도 자주 쳤던 것 같습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23~24)



1

무엇보다 지난 학년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꼭 읽기로 다짐했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전보다 많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말씀을 읽는 것을 자주 잊어버려서 정말 속상했어요. 참, 그래도 다짐했던 것 한 가지는 잘 지켰던 것 같아요.

바로 동생과 싸우지 않은 것이랍니다. 작년에는 동생과 싸우지 않고 잘 지내서 부모님께 칭찬을 많이 받았습시다.

지난 학년에는 다짐했던 것을 못 지켜서 부끄럽지만, 그래도 새로운 학년이 되었으니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다짐을 하겠습니다. 음... 새로운 학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매일 꼭 읽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지키기 어려운 일이지만 노력해서 꼭 지키고 싶어요.
그리고 욕도 하지 않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습니다.

제가 잘 할 수 있을까요? 걱정은 되지만 기대도 된답니다. 작년에 선생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으로 날마다 변해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날마다 변해가고 싶습니다. 새로운 학년에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하나님, 제가 다짐한 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새로운 학년이 되어 정말 즐겁게 교회 학교에 다니고 싶어요.
하나님, 처음 만나는 친구하고도 빨리 친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의 공부

1. 지난 학년에 여러분이 못한 약속이나 아쉬웠던 점이 있나요? 지나간 학년을 반성하는 글을 아래에 써 보세요.

2. 여러분은 다음 중 어떠한 마음으로 새로운 학년을 맞이하고 있나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기 원하실까요?

① **넌 항상 잘못을 많이 하니까 새 학년이 되어도 똑같은거야.**



② **작년에는 잘못된 점이 많았지만, 잘못을 고치도록 새롭게 시작해야지!**



③ **잘 모르겠어.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잘못된 것을 고치고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3. 새로운 학년이 되어, 꼭 지키고 싶은 것이 있나요? 아래 어린이처럼 여러분의 다짐을 써 보세요. 그리고 그 다짐을 지킬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써 보세요.



이번 학년에는 반드시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을거야!

나의 다짐



친구들과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겠어!

나의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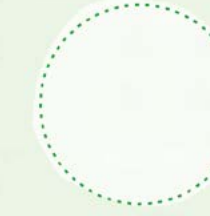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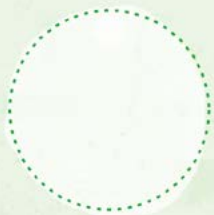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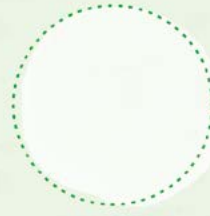
오늘의 말썸을 배우고

새 학년 첫 분반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해요.

새로운 분반에서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보니 어떨까요? 아래의 보기처럼 선생님과 친구들의 얼굴을 그리고 이름과 특징을 적어 보세요.



이름 : 김민지
웃을때 보조개가 생겨서
예쁘다.





예화

바로 시작하세요

유럽의 큰 부자 로스차일드는 미국에 회사를 차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부하 직원 중 한 사람을 택해 미국의 큰 도시인 샌프란시스코의 책임자로 세울 계획이었습니다. 곧바로 직원 중 한 명을 불렀습니다.

"당신을 미국에서 새로운 사업의 책임자로 생각하고 있는데 며칠 정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까?"

"한 열흘 정도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좋군요, 당신을 보내기로 결정되면 알려주겠소."

로스차일드는 또 다른 직원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그는 3일이 필요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부른 직원은 "저는 지금 즉시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오늘부터 당신은 샌프란시스코에 세울 우리 새 회사의 책임자입니다.

내일 샌프란시스코로 떠나는 배를 타시오." 로스차일드는 당장 주어진 일을 신속하게 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이 바로 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 중 하나가 된 줄리어스 메이입니다. 주저하는 사람, 즉시 출발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꿈을 갖고 좋은 목표를 세우고 결단을 했다 할지라도 성공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결심한 것은 바로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부모님
난

선생님
난